

**구라마타 시로의 디자인 언어와 실내공간 표현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Languages of Shiro Kuramata and Characteristics of Interior Design Projects

이낙현* / Lee, Nak-Hyu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quire into the expressive characters of Shiro Kuramata's works regarding his design languages.

His design languages, based on sentimentality and aesthetics characteristic of the orient and his unique memories and experiences, can be defined as nongravitational, floatation and transparency. And the definition can be completed by his unique extinguishing technique, eliminating the structure with materials without feature, such as glass and acrylic and expanded metal. steel mesh and 'Star piece Terrazzo' a material which he has invented.

This study examines Shiro Kuramata's design works from the late 1960's to 1991, the year of his death, the background of his growth and the art and people who have influenced him. It also looks into the indigenous cultural background and his unique memories and experiences. The study also considers his furniture works and interior design to read his languages, properties of the materials and expressive techniques.

The study presents data on Shiro Kuramata and puts forwards the significance of his works and tries to lead the way of the interior design by application techniques of materials.

키워드 : 구라마타 시로, 무중력, 부유, 투명성, 소재, 표현기법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의의

디자인의 어원인 라틴어 데시그나레(designare)가 “이미 존재하는 기호를 해석해서 새로운 기호를 창조하는 행위”¹⁾를 의미한다면 디자인이란 문화적 상징의 해석과 창조로 정의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디자인은 기존에 있는 사물의 개념이나 명칭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기능과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문화를 형성하며,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965년 자신의 사무실을 설립하여 199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상업공간 및 주택, 그리고 가구와 조명, 제품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분야에서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는 구라마타 시로(Shiro Kuramata)는 개념을 창조하는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다. 디자인사의 대전환기라 할 수 있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였던 구라마타 시로는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을 비롯한 미니멀리즘(Minimalism)에 대한 흥미, 1981년 ‘뎀피스(Memphis)’ 참가 및 에ttore 소사스(Ettore Sottsass)로부터의 영향,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 및 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사고의 폭을 넓혀나가는 한편, 어떠한 양식에도 얽매임 없이 동양의 고유한 미의식, 그리고 독자적인 체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디자인 언어와 표현으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의 가장 큰 욕망은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날고 싶다. 떠다니고 싶다.”²⁾고 말하는 구라마타 시로에게 있어 실내공간이나 가구 등을 디자인하는 것은 단지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사물의 관습적인 명칭이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그 본질을 파헤치고 소재가 갖는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 새로운 시각적 기능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랫동안 인식된 명칭과 개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사물에 자유를 부여하는 작업이었다. 형태와 재료, 그리고 질감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바탕으로 이

* 정희원, 대전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전임강사

** 본 연구는 1999년도 대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1판, 숲 출판사, 서울, 1999, p.6

2)P/A Profile, Breaking the Bonds, Progressive Architecture, September 1988, p.74

루어지는 그의 작품은 기술적 정확성과 놀라운 완성도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소재의 특성과 표현의 아름다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구라마타 시로의 작품을 통하여 그의 디자인 언어와 표현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그가 동양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뛰어난 디자이너의 한 사람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음과 동시에 현재까지 실내디자인 경향과 철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작품을 재정립함으로써 구라마타 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함에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두고자 한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구라마타 시로의 디자인 언어와 작품의 표현 특성을 고찰함에 있어 그의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던 다른 장르의 예술과 인물의 영향을 구라마타 시로의 성장 및 작품활동을 통하여 살펴본다. 또한 선(禪)사상과 공간미학 등 동양의 고유한 문화적 배경, 구라마타 시로만의 체험과 기억을 통한 디자인 언어의 생성배경을 살펴보고, 특히 구라마타 시로의 정확한 기술력에 의해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는 가구와 실내 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디자인 언어를 고찰한다. 그리고 구라마타 시로의 소재 및 표현기법 등이 집약되어 있는 대표 작품 중 실내공간을 중심으로 내적 표현과 형태, 그리고 소재와 표현기법 등의 외적 표현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외에서 발간된 구라마타 시로의 작품집과 저서, 그리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통해 발표된 작품과 구라마타 시로의 인터뷰 기사 및 기타 참고 문헌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특히 1996년 6월부터 일본 동경 하라미술관(HARA Museum)을 시작으로 로스엔젤레스, 멕시코, 뉴욕, 파리, 비엔나 등을 순회하고 돌아와 1999년 6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마지막 개최지로 일본 교토 국립근대미술관에서 전시되었던 '구라마타 시로의 세계'전의 출품된 작품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2. 작가의 성장 및 작품활동

2.1. 작가의 성장과 디자인교육

1934년 일본 동경에서 태어난 구라마타 시로는 어린 시절을 그의 부친이 근무하였던 동경 이화학연구소(理化學研究所)의 사택에서 보냈다. 그는 이곳의 연구원이었던 부친의 덕분으로 남들보다 빨리 신소재에 접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가 디자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소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자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53년 동경 도립 공예고등학교 목재과를 졸업한 구라마타 시로는 가구회사에 취직하여, 이곳에서 기술과 장인정신을 습득하게 된다. 이 시기 그는 새로 등장한 공중전화 박스를 보고 사회와 디자인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아직 거리에 공중전화 박스가 없을 때 '단조 쓰루(丹頂鶴)'라는 공중전화박스는 스틸 박스에 빨간 플라스틱지붕으

로 디자인되어 내부의 조명이 지붕을 빨갱게 밝혀주어 한밤중에도 위치를 알기 쉽게 할 뿐 아니라, 전력을 절약하는 의미도 포함한다는 콘셉을 읽은 구라마타 시로는 디자인이란 기술만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일본의 '바우하우스'라 불리는 '구와사와 디자인 연구소(Kuwasawa Design Institute)³⁾ 리빙 디자인과에 입학하게 된다. 구라마타 시로는 이곳에서 동·서양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창조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밑거름은 그에게 일본적인 소재에 의지함 없이 소재의 본질과 형태에 대한 연구를 지속시켜나가는 큰 힘이 되었다. 1956년 구와사와 디자인 연구소를 졸업한 구라마타 시로는 그의 나이 22세가 되는 해 '도무스(Domus)'지를 통하여 이탈리아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접하게 되고 도무스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될 것을 결심한다. 이후 그는 디자인회사 광고부에 입사하여, 점포설계 및 쇼케이스(Show Case), 윈도우 디스플레이(Window Display) 등을 담당하면서 도료를 이용하여 자연소재의 질감을 변화시키는 디스플레이 등을 시험하게 된다. 구라마타 시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소재에 관한 흥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시작한다.

2.2. 마르셀 뒤샹의 영향과 개념의 전환

1965년 33세가 되는 해, 구라마타 시로는 자신의 '구라마타 디자인 사무소'를 설립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는 조각과 회화 등 다른 장르의 예술과 접하게 되는데, 특히 마르셀 뒤샹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개념의 전환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개념예술(Conceptual Art)에 대한 매력과 단 플레빈(Dan Flavin), 도널드 저드(Donald Judd) 등에 매력과 관심을 가지게 되며, '공간으로부터 환경'이라는 전시회를 통하여 예술과 디자인의 융합이라는 개념의 변혁에 자극을 받는다.⁴⁾ 형태적 환원이나 단순성의 원리, 공업용 소재의 선호, 그리고 '소멸'이라는 미니멀리즘이 지닌 본질은 일본의 고유사상, 즉 선(禪)사상과도 공통되는 것으로서 1960년대 후반 구라마타 시로를 비롯한 일본의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널리 받아 들여지게 되었다. 1969년 발표한 '클럽 저드(Club Judd)'에서 구라마타 시로는 미니멀리즘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후 구라마타 시로의 상징적 미니멀리즘의 영향은 20여년간 일본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구라마타 시로는 이 시기 이미 미니멀리즘을 완전히 소화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고유한 영역을 전개시켜 나간다.⁵⁾ 또한 '사이렌스(Silence)'라는 그룹을 결성하여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 및 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자극을 받는다.

2.3. 댄피스의 참가와 에도레 쏘쓰사와의 교류

1970년 일본 만국 박람회 'EXPO 70'에 참가함으로써 세상에 이

3)P/A Profile, 상계서, p.74

4)HARA Museum, Shiro KURAMATA, Foundation Arc-en-Ciel, Tokyo, 1996, p.209

5)Shigeru Uchida 외, Japan Interior Vol 1, Rikuyo-Sha Publishing, Tokyo, 1995, pp.23-24

름을 알리게 된 구라마타 시로는 1970년대 후반까지 10여 년 동안 비교적 경질적인 직선을 주로 하는 디자인의 작품을 많이 발표하였다. 흑과 백의 단순한 색채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기 그의 일련의 가구와 상업공간 등은 기능을 혼동시키거나 사물의 개념을 역행하는 듯한 표현이 많았다. 그러나 1981년 멤피스의 참가와 에또레 쏘싸스와의 교류를 계기로 구라마타 시로는 그의 디자인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물론 1979년 말부터 조금씩 곡선을 사용하고 있듯이 그의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것은 구라마타 시로에게 있어서 조금은 어색함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구라마타 시로에게 있어 멤피스의 참가는 그의 디자인에 곡선에 의한 자유로운 형태와 색채의 풍부함을 가져다주었고 시(詩)적이며,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작품을 발표하게 되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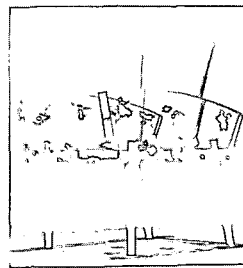
그러나 구라마타 시로는 멤피스의 참가에 대한 동기가 멤피스의 운동 목적이나 활동 방향보다 단지 에또레 쏘싸스의 스케치에 의한 것 뿐 이라고 밝히고 있다.⁷⁾ 즉, 참가를 권하는 에또레 쏘싸스의 편지 속에 들어 있는 그의 스케치가 구라마타 시로 자신의 직선적인 표현과 달라 흥미를 가지고 참가하게 된 이유인 것이다. 그 결과 그는 디자인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으며, 소재에 대한 흥미와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구라마타 시로는 멤피스 참가에 의해 변한 것이 아니라, 해방된 것으로 그의 디자인 활동에 새로운 면을 더한 것이었다. 스틸 메쉬(Steel Mesh), 스타 피스(Star Piece) 테라조, 발광 다이오드(Luminous diodes), 착색 아크릴 블록의 사용 및 물질 감을 없애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형광 색의 펄(Pearl)도장 역시 이 시기에 개발하였다. 구라마타 시로는 '소멸'이라는 수법과 새로운 소재의 개발, 형태의 가능성의 모색을 때로는 각각 독립하여, 때로는 하나의 작품 속에 엮여 가면서 시대의 흐름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던 것이다.

2.4. '동경현상(Tokyo Style)'과 구라마타 시로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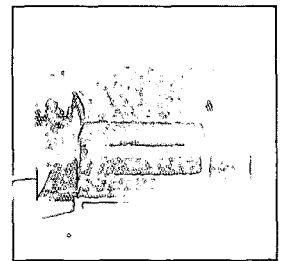
'중력의 부정'이라는 개념을 공간에서 다루고 있는 첫 작품 '다카라 도(Dakara Do)'를 발표한 구라마타 시로는 이어서 구조체를 빛으로 치환시키고 있는 '에드워드(Edward's)'매장을 발표하여 충격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때까지 상업공간에서의 실내디자인의 중요성과 가치를 그다지 느끼지 않았던 의류업계에서 매장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주로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의미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라마타 시로의 에드워드 매장 디자인은 이렇게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머물렀던 매장디자인의 개념을 공간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패션 브랜드(Fashion Brands)에서 공감감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패션산업의 성공은 상업공간의 디자인과 함께 한다는 인식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부티크(Boutique)공간'시대를 열게 하였으며, '동경현상(Tokyo Style)'이라는 일본 특유의 공간을 낳는 원동력이 되었다.⁸⁾ 이어서 발표하게 되는 이세이 미야케 부티크(Issey Miyake boutique)매장은 조형력과 소재개발이 낳는 가치창조의 공간으로서 구라마타 시로의 디자인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으며, 패션의 소재개발과 조형력을 창조하는 패션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와의 호흡은 도쿄, 뉴욕,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연속하여 전개되었다.

1972년 '마이니찌(毎日) 산업 디자인상' 수상을 비롯하여, 1981년 '제1회 일본 문화 디자인상' 그리고 1990년 '프랑스 문화부 예술 문화 훈장' 등을 수상하였으며, 파리 장식미술관, 샌프란시스코 근대미술관 및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과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Vitra Design Museum, Basel) 등에 '변형의 가구(Furniture in Irregular Forms Side 2)'와 'How High the Moon' 그리고 'Miss Blanch'가 각각 소장되어 있다.



<그림 1> Miss Blanch



<그림 2> How High the Moon

3. 디자인 언어와 표현특성

3.1. 디자인 언어의 생성배경

'정의를 내리고 이상적 상황이나 결정적인 이데올로기를 쫓으려하지 않는다고⁹⁾ 한 에또레 쏘싸스의 지적대로 구라마타 시로의 디자인 사고의 중심에는 어떠한 원리나 규칙도 작용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항상 '인간의 존경'이라는 것을 사고의 중심에 놓고 그곳으로부터 디자인하는 것을 디자이너의 사명으로 여기는 작가로 알려져 왔다. 실지 '소멸'이라는 수법과 '개념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그의 자세는 이세상의 모든 구속이나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자하는 그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

"지구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누르고 있는 것은 인력이며,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의미한다. 투명한 소재를 만나고 십 수년, 그 소재를 다루고 있는 과정에서 잠재의식 안에 저항하고 있는 것은 인력이 아닌가 생각한다."¹⁰⁾고 하는 구라마타 시로의 사고와 감성의 바탕에는 그가 태어

8)Shigeru Uchida 외. Japan Interior, Vol 3, Rikuyo-Sha Publishing Inc, Japan, 1995, p.23

9)Shiro Kuramata, Shiro Kuramata 1967~1987, 3판, PARCO CO., LTD Tokyo, 1992, pp.128-129

10)HARA Museum, 상계서 재인용, On the Revolving Cabinet, Japan Interior, May 1973, p.140

6)HARA Museum, 상계서, pp.96-97

7)HARA Museum, 상계서 재인용, 이탈리아 디자인과의 만남, 장식타일 연구 8607, p.201

나고 자란 동양의 고유한 선사상의 본질과 상통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기성의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선의 본질 및 소거해 가면서 풍요로움을 찾는 모순과 역설의 선의 공간 미학 속에서 구라 마타 시로의 디자인 언어의 생성배경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문화적 배경

가. 선(禪)의 본질

선은 '디냐야(Dhyana)' 또는 '선나(禪那)'라고 하는 고대 인도어에서 유래하며, 중국으로 전파되면서 이 말의 번역어로서 명상, 또는 '정(定)'을 붙여 선정(禪定)으로 이해된다.¹¹⁾ 선의 본질은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무위(無位)의 진인(真人)을 추구하는 인간관으로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되 자유로운 절대 주체의 생활 방식은 행동을 통하여 추구함에 있다. 경전이나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주체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을 표방하고 인간의 근저에 '자성청정심(自成淸靜心)'을 인정하는 사상은 '직지인심(直指人心)'을 뜻하며 나아가 내부에 있는 자기의 본성을 똑바로 응시하여, 스스로를 연다는 '견성성불(見性成佛)'의 모순의 철학이라 할 수 있다.¹²⁾ 선문답을 중시하며, 각인각색의 어록이 있다. 대표적인 어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불립문자 : 실천과 체험을 중요시하는 선의 근본 입장으로 경전이나 책에 쓰여진 문자나 말에 의한 설명, 해석에 의존하지 아니 할 것을 뜻한다. 진리는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며, 지성과 개념을 넘어선 곳에 불성이 있음을 뜻한다.

② 교외별전 : 진리는 문자에 의해서 표현될 수 없으며, 한번 말이 나오고 경전에 나타나는 것은 그 순간부터 이미 불법의 진리라고 말할 수 없음을 뜻한다. 진리는 방법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체험에 의해서 전해짐을 나타내고 있다.

③ 직지인심견성성불(直指人心見性成佛) : 사람은 본래 불성을 갖추고 있어 청정이라 한다. 망념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똑바로 응시하여, 스스로의 불성을 깨닫고 자각하여 불이 된다. 이것은 본래의 인간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④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 존재하는 만물은 본래 모두 실체가 없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해야 할 것은 하나도 없다. '절대 무(無)'의 세계를 뜻하며, 사람은 본래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고, 어느 것에도 소유 당하지 않는 완전히 자유스러운 존재로 보고 있다. 선의 자유는 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것을 포함하는 자유이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자재로 된 심정으로 그것은 본래의 순진한 자기의 원점이기도하다.¹³⁾

구라마타 시로는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는 관습적인 물체의 명칭이나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그 본질적인 한계까지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제로로부터의 발상'이라는 방법론을 택하고 있다.¹⁴⁾

제로로부터의 발상으로 물체에 얽혀있는 형태와 의미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떼어내고 아무 것도 없는 무(無)에서부터 사물을 다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구라마타 시로에게 사물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사물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으며, '가구'라는 형태와 의미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 구라마타 시로의 '변형의 가구(Furniture in Irregular Forms Side 2)' 및 일련의 서랍가구 시리즈들은 우리에게 늘 인식되어 있는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같은 의미의 발상으로 곤란한 제작의 대상을 미적 기능으로 바꾸어 형태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다른 의미의 가구로 태어나게 하였다.

나. 선과 일본문화

13세기 초 가마쿠라(鎌倉)시대에 에이세이(榮西)와 도겐(道元)에 의해 일본으로 전래 된 선은 18세기 에도(江戸)시대 중기까지 약500여 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발전하였다. 중세와 근세 대륙 문물을 동반하여 전래 된 선은 사비, 와비 등 한적하고 여유로운 생활요소를 내포하며, 일본 선의 특색인 '무(無)의 문화'¹⁵⁾를 이루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무'란 세간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의 무가 아니고 참된 무로 일념의 망집도 없을 때 전체가 허공과 같은 것을 의미하며, 이 허공은 유(有)도 무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음을 말한다. 다도와 꽃꽂이 등의 생활문화와 용안사(龍安寺)의 석경(石庭)이나 일본 산수화의 시조라 일컫는 셋슈(雪舟)의 수묵(水墨), 다도의 완성자 리큐(利休)의 와비차(茶)¹⁶⁾ 등 선의 예술로서 그 절정을 이룬다.

기존의 구조를 소거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 부재의 것의 구조를 띄어 올리는 기법에 의해 존재의 추상화를 추구하고 있는 구라 마타 시로의 작품 속에서 '무'의 선 예술의 정신을 찾을 수 있다. 1968년 제작 된 그의 '피라미드 가구(Pyramid Furniture)'는 아크릴이라는 재질감을 소거하여 일체의 서랍만으로 이루어지는 가구로서 흑과 백의 색상의 선택으로 더욱 존재의 추상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다. 공간미학

일찍이 브르노 다웃(Bruno Taut)은 일본 건축의 특징을 '단순 명쾌성, 소재의 존중, 무장식의 장식'¹⁷⁾이라고 표현하였다. 일본의 전통 건축은 기둥과 보로만 구성된 가구식(架構式) 구조로 기둥과 기둥사이에 휘장이나 장지, 널문 등을 설치하여 생활의 용도에 따라 그 넓이와 기능을 조절하고 이러한 장치들을 소거하여 여름의 습한 기후를 이겨냈다. 따라서 일본의 가구식 공간은 고정된 벽체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공간을 개방시키고 자유로움을 획득하였다. 또한 일본 건축에서 유일하게 벽으로 이루어진 다실(茶室)은 지극히 극소한 면적과 장식을 하지 않는 단순하고 소박한 특징을 지닌다. 이와 같은 다실 공간의 간소함은 불필요 한 것은 잘라내고 물체의 본성, 본

11)브리태니커 대 백과 사전, 브리태니커 동아일보 공동출판, 1994
 12)스즈키 다이세쯔, 선의 진수, 고려원, 서울, 1988, p.64
 13)Mitsumara Suiko Shoin Editor, ZEN GARDENS, First Edition, Mitsumara Suiko Shoin Co. Ltd., Kyoto Japan, 1992, pp.60-61

14)HARA Museum, 상게서 재인용, Japan Interior, p.141
 15)스즈키 다이세쯔, 상게서, p.198
 16)간소정적(簡素靜寂)의 경지를 중시 여기는 차의 한 유파
 17)Ito Deiji, The Roots of Japanese Architecture, Bijutsu Shuppan-sha, Japan, 1962, p.7

질을 구하여 역으로 보다 풍부함을 찾아가는 '소멸의 미학'¹⁸⁾으로 무(無)를 찾는 선의 세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단순함은 합리성을 위한 모더니즘의 단순성과는 달리 극소의 공간에서 무한의 우주를 잡으려는 모순과 역설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단순성이라 할 수 있다.

구라마타 시로는 최소한의 요소에 의해 본질적인 의미¹⁹⁾와 기능을 찾는 것을 그의 디자인 전체의 테마로 삼았다. 모든 구조체를 빛으로 치환시킨 에드워드 본사빌딩(Home Office of EDWARD'S Company)은 진열과 조명을 일체화시키고 최소한의 요소에 의해 인간과 공간과의 본질적인 관계의 의미와 기능과 합리성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구라마타 시로의 역설적인 공간 미학이 담겨져 있다.

(2) 구라마타 시로의 기억과 체형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구조 중에서 무의식은 예술가의 창조력에 있어 의식보다도 잠재의식에 보다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잠재의식은 단순히 개인이 태어나서 경험한 것뿐 만 아니라, 과거가 압축된 상태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²⁰⁾

구라마타 시로는 "현재의 생각과 과거의 기억이 의식, 무의식 안에서 교신하고 있을 때, 돌연 어떤 형태가 반영되어 나온다. 이것을 기반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디자인을 구체화하는 것도 있다."²¹⁾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디자인은 기억의 단편을 집약하여 구체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듯이 부친이 근무하였던 이화학 연구소의 사택에서 보낸 구라마타 시로의 어린 시절은 그에게 디자인의 소재와 형태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억과 체험을 그의 저서 '미 현상(未現像)의 풍경'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가지고 오신 알루미늄 레코드의 반짝거리는 빛에서 미래라는 것을 본 듯한 구라마타 시로는 그의 작품 활동의 시대와의 관계성을 형태보다 오히려 소재에서 찾고자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연구실이 있는 서양식 건물의 긴 복도에 드리운 얇은 빛에서 시간이 정지되어 수평으로 정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회상하고 있다. 또한 휴일 오전, 사람도 차도 움직임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텅 빈 연구소에서 중력의 균형을 되찾은 듯한 해방과 휴식을 본 것 같다고 하였다.²²⁾ 그리고 그 공간의 냄새와 소리, 빛과 나무의 모든 형태와 기억들이 자신 안에서 무한의 우주를 구성하고 있으며, 바람이나 냄새, 하늘의 색과 빛과 같은 기억이 무중력 공간에 강하게 이어지면서 그에게 소재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3.2. 디자인 언어와 표현특성

(1) 내적 표현언어

가. 무중력

18)特集, 現代 建築家 安藤忠雄 傳統との對話, 藝術新調, 1993, 9, p.32

19)Shiro Kuramata, Shiro Kuramata 1967~1987, 상계서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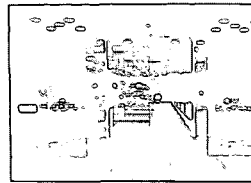
20)조혜임, 잠재의식을 통한 상징적 형상표현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8 pp.1-8

21)HARA Museum, 상계서 재인용, DESCENT, 1986, 12, p.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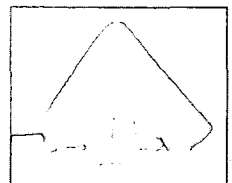
22)Shiro Kuramata, 未現像의風景, 住まいの 圖書館出版局, Japan, 1991,

중력은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지만, 구라마타 시로에게 있어서 중력은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데올로기를 비롯한 이세상의 모든 것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힘을 뜻하고 있다. 따라서 중력으로부터의 해방은 이 세상 모든 고정관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완전한 자유의 세계로 불러내는 것이기도 하였다.²³⁾ 이것은 구라마타 시로의 '인간의 존경'에 대한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성의 문맥을 없애고 중력에 거스르는 작업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추구되었다. 그것은 소재나 구조, 구축체와 같이 중력을 의식시키는 존재의 소거라는 방법론에 의하여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첫 시도는 1969년 귀금속 점 '다카라 도(Dakara do)'의 매장 디자인을 통하여 나타난다. 선반의 배후 2면을 10mm의 투명 강화 유리로 지지하고 전면을 개방하여 유리 선반을 띄우고 그 위에 놓여 있는 상품이 중력을 부정하고 공간에 정지되어 있는 듯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72년 발표한 조명기구 '오바 큐(Oba-Q)'는 3mm 정도의 유백색 플라스틱판을 전기가마에서 수분간 가열하고 그것을 볼(Ball) 상태의 것 위에 올려놓고 자연스럽게 늘어져 내려온 상태를 경화시켜 마치 한 조각의 천이 온갖 중력을 거부하고 공간에 떠있는 것처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 귀금속 점
-다카라 도(Dakara do)



<그림 4> 조명기구
-오바큐 (Oba-Q)

나. 부유(浮遊)

"마그리트(Rene Magritte)²⁴⁾의 그림 속에 떠있는 의자나 악기와 같이 아무 것도 지지하지 않고 떠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다. 그때 처음으로 디자인이 파생되어 나온다."²⁵⁾고 하는 구라마타 시로에게 있어 부유에의 회구는 중력의 문체와 함께 추구되었던 디자인 언어 중 하나이다.

어린 시절 텅 빈 우물 속에서 바라본 하늘의 잔상은 신선함과 새로움으로 그의 기억 속에 남아 '부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떠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모든 계급조직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²⁶⁾는 그의 사회적 이상까지도 함축하고 있다. 구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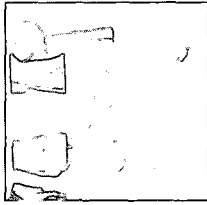
23)HARA Museum, 상계서, pp.91-93

24)르네 마그리트(1898~1967) : 벨기에 화가인 르네 마그리트는 초기에 입체파와 표현주의 영향을 받았으나,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는 다다를 발전시킨 초현실주의(Surrealism)의 대표적인 작가로 그의 작품은 일상적인 사물들의 관습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 꿈과 환상에서나 가능한 예상치 못한 시, 공간을 우연히 마주치게 함으로써 문란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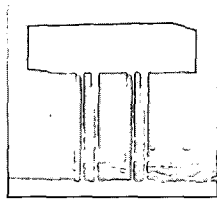
25)HARA Museum, 상계서 재인용, 상점건축 7306, p.141

26)HARA Museum, 상계서 재인용, SPACE MODULATOR, 8102, p.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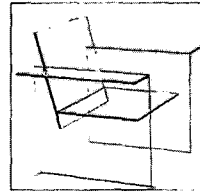
타 시로는 그의 디자인에 '부유'를 존재시키기 위하여 시간의 자취를 보여주고 있다. 계속적인 움직임으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거나, 움직이는 일순간을 잘라내어 고정시키는 정지 상태의 변증법²⁷⁾을 통하여 시간의 존재를 의식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닥에 목직이 고정되어 있어야 할 수납가구에 가늘고 긴 다리나 캐스터를 부착하여, '부유'에의 염원을 지닌 의식 있는 가구로 존재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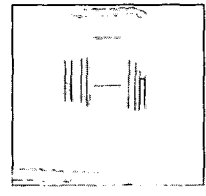
<그림 5> 아크릴스틀
스피럴을 위한 스톨(Stool)



<그림 6> 수납가구-
소라리스 (Solaris)



<그림 7> 유리의자



<그림 8> 캐비닛 드
큐리오지테- Cabinet de
Curiosite

다. 투명성

'투명성'의 라틴어 어원이 "Trans(a cross)+Parent(see)"²⁸⁾, 즉 넘어 보인다는 말로서 전면과 후면을 통하여 보여지는 실제적 속성으로 대상을 가로지르는 가시적 공간의 전달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구라마타 시로의 작품의 '투명성'은 단순한 대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현상을 넘어서 가시적 전달체계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다.

"내가 사물을 만드는 까닭은 내 자신이 이제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싶은 이유 때문이다."²⁹⁾ 라는 구라마타 시로의 이 말에는 '보이지 않는 것(見)과 보이지 않는 것(視)'³⁰⁾을 추구하는 그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형태도 없이 시각 저 너머에 있는 공간을 구라마타 시로는 갈망하는 한편, 색이라는 표면적인 것에 깊이를 주고 빛이라는 형태가 없는 것에 형태를 주어 빛과 색의 현상만으로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다. 색이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탈색되어 사라지는 색의 소멸 속에서 자신의 생명의 쇠퇴가 상승되는 듯한 착각은 생명을 지키려는 구라마타 시로의 잠재의식 속에서 색을 구하는 한편, 일체의 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투명함 속에서 색을 느끼고 상상하면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심감과 투명하게 된 자신을 확인하고 '생명의 중력감'³¹⁾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구라마타 시로는 자신의 순수무고한 투명성을 위해 일체의 기술의 흔적까지도 지워버린다. '포토본드100 (Photo bond)'이라는 강력하고 무색 투명한 접착제의 개발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유리 의자 (Glass Chair 1977년)'는 단지 12mm의 판유리 6장으로만 완성된 작품으로 모든 구축성과 기술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선명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미세한 곳까지 디테일(Detail)을 강행하는 구라마타 시로의 작업의 세련됨과 높은 기술의 완성도는 이 세계의 모든 고정관념의 힘없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의 세계로 불러내는 결의의 표방이라 할 수 있다. '유리의자(Glass Chair)'의 사고는 1980년대 이후 투명한 착색 아크릴가구 '캐비닛 드 큐리오지테(Cabinet de Curiosite 1989년)'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색이라는 표면적인 것에 깊이를 주고 투명한 음의 색을 보고자하는 구라마타 시로의 놀라운 감성이 일련의 착색 아크릴가구를 완성시키고 있다.

(2) 외적 표현언어

가. 형태의 단순성

1908년 아돌프 로스(Adolf Loos)의 저서 '장식과 죄악'에서부터 시작된 단순성의 미학은 미스의 'Less is Moor'로 이어지게 된다. 모더니즘에서 논의되는 단순성은 기능과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후 건축과 디자인에서의 단순한 형태의 추구는 기능과 합리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구라마타 시로는 비교적 경질적인 직선을 주로 하는 디자인을 보이고 있다. 모더니즘이 지니고 있는 기하학적 형태의 단순성은 그의 크고 작은 서랍가구 및 상업공간의 선반과 쇼케이스에 충실히 재현되고 있다. 그러나 구라마타 시로에게 있어서 이러한 형태의 단순성은 기능과 합리성을 위한 것도 아니며, 대량 생산을 위한 것은 더욱 아니었다. 오히려 합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능을 무시하는 아이러니(Irony)와도 같은 단순성이다. 49개나 되는 수많은 서랍이 부착된 가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분류해야 좋을지 모르는 정리의 기능에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기능성이나 합리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기능성의 본질을 탐구하는 구라마타 시로의 디자인 방법론인 것이다. 그는 최소한의 요소로 단순화하는 것에 의해 인간과 공간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본래의 의미의 기능과 합리성을 찾게되는 것³²⁾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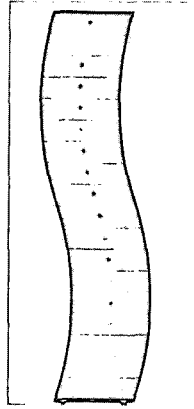
구축체의 소거, 구조, 구축 혹은 구성이라는 것을 조립하여 문맥을 형성하는 골조의 일체를 떼어내고 물체가 지닌 본연의 모습을 더듬어 가는 것에 의해 대상은 한번 더 추상화되고 순수한 존재로 파고 들어가 그가 말하는 '새로운 기능'이 발견되는 것이다. 구라마타 시로에게 있어 기능은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의 존재에

27)Oki Kenji, *ユートピアと都市の間の夢*, 新建築,1998, 8月号
28)C. Rowe, *윤재희 외 역, 근대 건축론집*, 세진사, 서울, 1986, pp.185-186
29)Oki Kenji, *상계서*
30)Kazuo Kawasaki, *On the design of Shiro Kuramata A memento of the dream*, AXIS, Vol 72, 3/4 1998, p.126
31)Kazuo Kawasaki, *상계서*, p.125

32)HARA Museum, *상계서* 재인용, Japan Interior 7012, p.130

의해 처음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1700mm의 '변형(變型)의 가구'는 내부의 분절 프레임을 생략한 지극히 단순한 가구이다. 단판의 적층 성형합판에 폴리우레탄 도장으로 마감되고 검은 색의 외곽프레임과 흰색의 서랍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단순성에는 '가구'라는 전통적인 개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든다. 즉, 형태(形態)의 변형이 아닌 형식(型式)의 변형으로 전통적인 '가구'라는 개념의 인식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9> 변형의 가구
Furniture in Irregular
Form side 2

나. 소재와 질감

시대와의 관계성을 형태보다 소재에서 찾고자 한 구라마타 시로에게 있어 소재는 단순히 형태를 만들기 위한 재료이기보다 소재 자체가 곧 형태가 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소재의 개발과 표현에 대한 연구는 구라마타 시로에게 매우 중요한 작품활동 중의 하나였다. 특히 그는 각 소재의 특성과 빛의 현상을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실내공간에 표현하였는데 그것은 기술과 정확성의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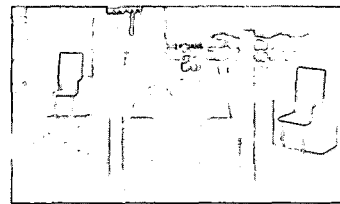
구라마타 시로의 '포도본드 100'의 사용은 유리 재료의 확장성을 한 차원 높였을 뿐만 아니라, 스타피스 테라조나 스틸 메쉬와 같이 어디에도 없는 혼한 기성 재료를 사용하여 어디에도 없는 자신만의 소재로 개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건축과 디자인 각 분야에 걸쳐 이와 같은 소재의 활용범위를 넓히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다음에서 구라마타 시로의 소재와 질감의 표현 기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유리(Glass) : 비 결정질의 무기 고체로서 유리는 내구성과 함께 투명성, 시야의 개방성, 광선을 굴절시켜 광명효과를 높여주는 것 등 다른 재료에서 볼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건축과 실내디자인, 제품 등에 폭넓게 사용되어 온 재료이다.³³⁾ 구라마타 시로는 유리의 투명하고 존재감 없는 특성을 즐겨 사용하였다. 그는 유리가 지나고 있는 본래의 투명성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블라스트(blast) 유리에 의해 빛을 흡수시키거나, 투명 유리에 의해 반사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빛의 효과를 표현하였다. 또한 강화유리 3장을 겹쳐 놓고 중앙의 1장에 충격력을 주어 균열을 내고 접촉시켜 빛의 흔들거림 효과를 내기도 하였다. 이것은 구라마타 시로의 상업 공간에 자주 쓰이는 기법이기도 하였다. 이때의 빛은 유리의 금 하나 하나에 침투하여 그 속에서 발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바람에 잔잔하게 흔들리는 물결과도 같은 움직임으로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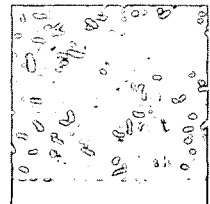
② 아크릴(Acrylic) : 아크릴은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열가소성 수지(Thermo Plastic resin)이다. 플라스틱 중 가장 투명도가 뛰어난 수지로 광선 투과율이 좋고 착색이 용이하다³⁴⁾. 구라마타 시로는 아

크릴의 착색이 자유로운 점을 이용하여, 투과성이 있는 형광 색으로 착색한 아크릴을 개발하였다. 적, 청, 황, 녹색 등의 착색 아크릴을 투명한 아크릴 속에 넣어 빛을 투과시키면 마치 물이 배어 스며들어 가는 틈과 비슷하게 아크릴 블록 안으로 조용히 침투하여 아크릴 자체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처럼 빛을 발하게 된다. 이것은 구라마타 시로에게 색의 깊이와 형태를 디자인 할 수 있게 하였다.

③ 스타피스 테라조(Star Piece Terrazzo) : 1983년 구라마타 시로에 의해 개발되어 그의 디자인의 상징적 소재가 되었다. 멤피스 참가를 계기로 '일상의 혼한 소재의 이용'³⁵⁾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는 소재이다. 진짜 돌보다 조금 질이 낮은 테라조에 색유리 파편을 넣어 칼라플하고 재미있는 테라조를 만들고 '스타피스'라 이름 지었다. 형태를 뛰어나와 비산하는 듯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발 된 스타피스는 멤피스전시회 참가를 위해 디자인한 테이블 '교토(Kyoto)'를 비롯하여, 많은 공간에 사용되었다. 구라마타 시로는 더욱 개발하여 투명 유리 파편을 넣거나, 스테인레스 칩을 넣은 테라조를 만들었다. 특히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뉴욕 매장에는 코카콜라 병을 깬 파편을 첨가한 테라조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와 상징성을 반영하였다.



<그림 10> 뉴욕의 이세이 미야케 매장



<그림 11> 스타피스
(Star piece)테라조

④ 스틸 메쉬(Steel Mesh) : 연강(軟鋼)의 얇은 판에 매듭을 넣어 끌어 당겨 망(網)상의 형태로 한 것으로 건축 도장의 밀지 등으로 사용한다. 본래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은 기성품의 거친 소재를 구라마타 시로에 의해 마감재로 활용되었으며, 오늘날 편칭 메탈의 대중적 사용을 가져왔다. 면과 선의 중간 상태를 소재의 특성으로 하며, 빛의 투과와 차단을 반복하는 반투명 효과에 의해 공간적 확장을 가져다준다. 구라마타 시로는 한 장의 판으로부터 여분의 것을 점점 소거하여 겨우 자립해 있는 면을 표현하고, 스틸 메쉬에 크롬 도장을 입히는 것에 의해 망매가 증식하는 세포와 같이 보이게 하여 구축체를 소거하는 것과 동시에 크롬 도장을 더하는 것에 의해 '무장식의 장식'³⁶⁾이라는 새로운 장식의 개념을 내렸다.

34)이낙현, 상계서, p.90

35)HARA Museum, 상계서, p.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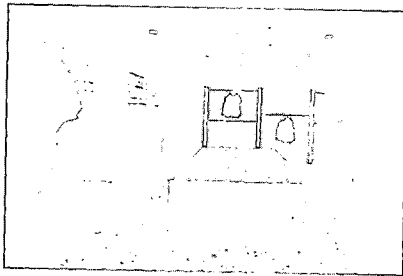
36)HARA Museum, 상계서 재인용, CHANCE, Summer, 1988, p.181

33)이낙현, 디자인재료학, 초판, 도서출판 한국디자인, 서울, 1998, p.190

4. 작품 사례 분석

4.1. 이세이미야케 마쓰야 백화점 (Issey Miyake, Matsuya Ginza, Tokyo 1983년)

멤피스 참가전을 위해 디자인 되었던 테이블 '교토(Kyoto)'를 위해 개발한 '스타피스 테라쥬'의 소재가 공간으로 확대 사용된 구라마다 시로의 첫 작품이다. 중력을 의식시키는 기존의 구조체의 소거라는 구라마다 시로의 '소멸'의 기법에 '일상적 소재'의 사용이라는 포스트모던이라는 시대의 조형언어를 더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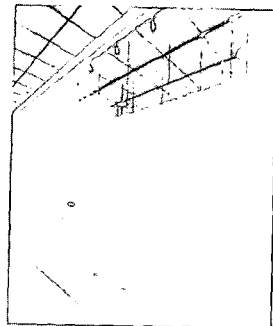
<그림 12> 이세이미야케 마쓰야 백화점

<표 1> 작품분석표

구분	작품 특성	
내적표현	중력으로부터 벗어나 '부유'하고 싶은 염원을 공간으로 표현	
외적표현	형태	바닥이나 벽 등 부재의 구별과 모든 디테일이 생략된 단순한 형태의 구조체로 구성
	소재 및 질감	선명한 색유리 파편을 넣은 스타피스 테라쥬를 사용하여 빛과 그림자, 그리고 무작위한 패턴의 색유리에 의해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진 것 같은 질감을 표현
	표현기법	구조체와 동일한 테라쥬를 사용한 테이블이 음영으로만 떠있는 효과와 하나의 면으로 되어있는 공간 속에 상품이 오브제처럼 띄워져 올라가게 표현

4.2. 이세이미야케 세이부백화점 (Issey Miyake, Seibu Shibuya, Tokyo 1987년)

중력의 소거라는 'How High the Moon'의 사고가 그대로 반영되어있는 작품으로 구조체를 노출시키면서 형태를 없애고 최소한의 요소까지 지워가면서 그곳에 어디까지라도 세포처럼 증식해 가는 '무장식의 장식'이라는 구라마다 시로의 역설적인 공간 미학이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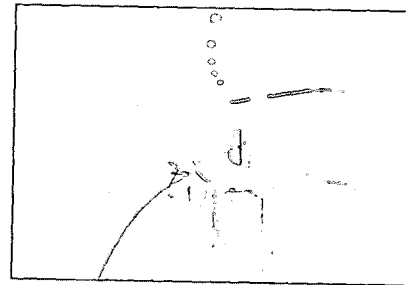
<그림 13> 이세이미야케 세이부백화점

<표 2> 작품분석표

구분	작품 특성	
내적표현	실체 없는 피막만을 존재시켜 물리적 경계선 저 너머에 존재하는 무형의 신비한 세계로의 연속과 확장을 유도함	
외적표현	형태	구조체를 노출시키면서 형태를 소거하는 것으로 벽체의 밑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구조체가 스틸메쉬로 구성, 텅 빈 형태만을 존재 시킴
	소재 및 질감	스틸메쉬 망에 크롬도장을 입히는 것에 의해 망매가 더욱 빛나고 증식해 가는 세포와 같은 질감을 표현, 구라마다 시로의 '무장식의 장식'의 개념 도입
	표현기법	선반 및 행거 역시 구조체와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여 허제로 존재시켜, 상품에 부유감을 주고있는 표현과 금강사 타일바닥 마감으로 공간 전체에 신비한 빛을 연출

4.3. 루치노 (Lucchino Bar, Nogizaka Tokyo 1987년)

구라마다 시로의 디자인 언어 '투명성'과 빛이 신비함과 에로틱한 환상을 자아내고 있는 작품이다. 투명한 유리 속의 실금 하나하나에서 반짝이는 빛의 흔들거림은 도시의 일시적이고 찰라적인 가벼움으로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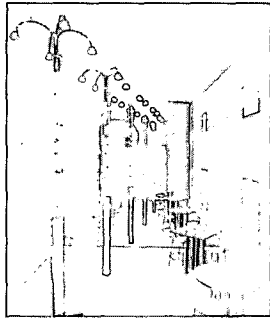
<그림 14> 루치노, 노기자카(Nogizaka)

<표 3> 작품분석표

구분	작품 특성	
내적표현	흔들거리는 내부의 운동적인 빛에 의해 강렬하게 움직이는 일시적이고 찰라적인 순간을 형상화하여 지하의 숨은 세계를 끌어내고 있으며, 신비하고 에로틱한 정령들의 세계를 묘사함	
외적표현	형태	진입부 계단의 동선을 길게 연장하여, 공간의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부채꼴의 기하학적인 형태의 평면을 따라 투명한 유리테이블을 조형적으로 배치
	소재 및 질감	알루미늄 접이 첨가된 스프레이 필도장의 벽과 천장으로 인해 구조체에 반짝이는 빛의 질감을 부여하고, 균열유리 사이로 빛이 투과하여 그 자체가 발광체같이 표현
	표현기법	발광다이오드의 저전압의 전류를 통과시켜 수많은 선의 단면을 빛으로 처리하고, 가볍고 에로틱한 붉은 빛의 테이블로 디자인하여 구조체의 얽은 필도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

4.4. 바 아브로모프, 호텔 일팔라조 (Bar O БЛОМОВ, Hotel IL PALAZZO, Fukuoka 1990년)

존재하지 않은 것을 공간에 구조화 하려는 구라마타 시로의 디자인 언어가 '투명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색'이라는 투명한음의 세계에서 색을 보고 느끼고자하는 구라마타 시로의 충동이 재질을 비 물질화 하는 '아크릴'의 특성의동양적 감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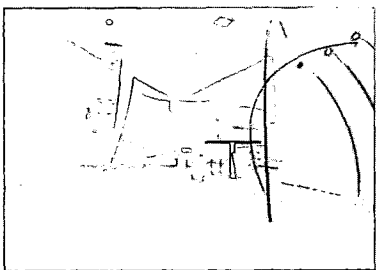
<그림 15> 호텔 일팔라조의 바 아브로 모프

<표 4> 작품분석표

구분	작품 특성	
내적표현	투명한 음, 얇은 음 등 음의 세계, 즉 '음색'을 공간에 부유 시키면서, 음으로부터 색을 느끼는 '음색'이라는 일본어의 단어를 역으로 하여 색으로부터 음을 느끼는 세계를 표현하고자 한 구라마타 시로의 감성과 미의식으로 완성된 작품, 색으로부터 음을 느끼고 색이 퍼지는 음, 색이 부유하여 음악적 넓이를 지니는 공간으로 음을 눈으로 즐기면서 공간과의 동질화를 유도, 색에 깊이와 형태를 주고 싶은 구라마타 시로의 염원이 표출	
외적표현	형태	입구에서의 긴 동선은 일본 전통 다실의 진입부 '로지'와 같은 형태로 공간의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벽과 천장의 부재를 하나로 하여 이음매를 생략하고 일체화 시킴
	소재 및 질감	투명하게 착색한 아크릴의 경쾌한 색상과 투명성으로 빛이 투과하여, 아크릴 자체의 색이 빛을 내고 있는 듯한 맑고 투명한 질감을 표현
	표현기법	투명한 아크릴 각재로 된 장방형의 긴 테이블을 배치하여 투명한 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조명의 기둥을 'Miss Blanch'와 같이 조화 장미를 투명한 아크릴 속에 봉인하여 움직이고 있는 순간을 정지시켜 공간으로 부유시킴

4.5. 스파이럴 인테리어숍 (Spiral Interior Shop, Tokyo 1990년)

고정되지 않고 떠있는 가변 벽체는 일본 전통의 가구식 구조 공간의 자유로움과 구라마타 시로의 '부유에 대한 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파이럴을 위해 디자인 된 투명 아크릴 블록의 스톨은 훗훗나는 가벼움으로 그 상징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림 16> 스파이럴 인테리어숍 내부

<표 5> 작품분석표

구분	작품 특성	
내적표현	움직임의 순간을 고정하고 중력으로부터 정지된 순간을 고정된 정지상태의 변증법으로 띄어진 가변 벽체와 훗훗 날고 있는 날개의 움직임을 고정하여 공간으로 부유시킴	
외적표현	형태	고정되지 않고 바닥에서 띄워진 벽체로 인해 물리적인 경계보다 비 존재와의 경계를 암시
	소재 및 질감	아크릴의 투명성과 선명한 색상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오팔유리 아크릴과 알루미늄 필 도장의 가볍고 밝은 질감을 표현
	표현기법	긴 알루미늄 파이프에 필 도장으로 마감된 꽃병에 조화를 갖아 한순간의 정지를 의미하고, 투명 아크릴 스톨 속에 훗훗 날고있는 날개를 봉인하여, 시간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표현

5. 결론

시대의 흐름은 항상 새로운 사조를 동반한다. 그리고 작가는 맑게, 혹은 작게 이러한 시대의 영향을 받게 된다. 구라마타 시로는 그가 활동하였던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여러 번의 디자인사의 대 전환기를 맞이했던 작가였다. 그러나 그는 확고한 자신의 사고를 중심에 두고 어떠한 사조에 있어서도 배타적이거나 타협하지 않고 폭넓은 교류와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디자인으로 소화시켜 나갔다. 이러한 구라마타 시로의 자세는 그의 디자인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물의 고정된 인식과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누구보다도 시대를 앞질러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인간을 항상 사랑하고자 했던 그는 우리에게 고정된 명칭과 인식에 안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고정된 사고 안에서의 창조라는 것은 전시대의 것과 그다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쉽게 잊고 포기하는 현상들을 구라마타 시로는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여준 작가로서 소재의 개발 및 기법의 끊임없는 그의 탐구정신은 단지 볼 수 없는 것을 보여 주는데 그치지 않고 고도의 기술과 정확성으로 시대를 이끌어 나갔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고정된 개념을 바꾸어 주었다.

무중력과 부유, 그리고 투명성이라는 자신의 디자인 언어를 다양한 소재를 통하여 완성시키고 새로운 기법의 선구자로서 시대의 흐름을 넘나들었던 구라마타 시로의 창조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참고문헌

1.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1판, 솔 출판사, 서울, 1999
2. 브리태니커 세계 대 백과사전, 브리태니커 동아일보 공동출판, 1994
3. 이낙현, 디자인 재료학, 초판, 도서출판 한국디자인, 서울, 1998
4. HARA Museum, Shiro KURAMATA, Foundation, Arc-en-Ciel, Tokyo, 1996
5. Aldo Rossi의 6인, HOTEL LI PALAZZO A City Stimulated by

- Architecture, Rikuyo-Sha Publishing, Inc., Japan, 1990
6. Ito Deiji, The Roots of Japanese Architecture, Bijutsu Shuppan-sha, Japan, 1962
 7. Mitsumara Suiko Shoin Editors, ZEN GARDENS, First Edition, Mitsumara Suiko, Co Ltd, Kyoto Japan, 1992
 8. Shiro Kuramata, 未現像の風景, 3版, 住まいの図書館出版局, Japan, 1998
 9. Shiro Kuramata, SHIRO KURAMATA 1967~1987, 3 Edition, PARCO C., LTD, Tokyo, 1992
 10. Shigeru Uchida 외, JAPAN INTERIOR, Vol 1~4, Rikuyo Sha Publishing, Japan, 1995
 11. C. Rowe. 윤재희 외 역, 근대 건축론집, 세진사, 서울, 1986
 12. 스텝끼 다이세쯔, 東峰 傭길. 선의 진수, 고려원, 서울, 1988
 13. 조혜임, 잠재의식을 통한 상징적 형상 표현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4
 14. AXIS 3/4, 11/12 1998, 5/6 1999
 15. Comfort, 9, 1992
 16. Progressive Architecture, 9, September, 1988
 17. 藝術新調, 9, 1993
 18. 新建築, 8, 1968

<접수 : 2000. 1. 31>